

프랑스, 도로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'Routes et Rues' 2026 공모 개시

해당국가	프랑스	기관(기업)	도로교통국, Cerema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프랑스 교통부와 Cerema*는 도로 분야 혁신 기술의 현장 실증을 위한 2026년도 'Routes et Rues' 공모를 개시

* 프랑스의 도시계획·모빌리티·교통 인프라·환경 분야 공공정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전문기관

- 해당 공모는 연구개발 성과를 도로 현장에 적용해 실제 교통·환경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으로 운영
 - 프랑스 교통부 도로교통국(DMR)은 도시 도로 인프라 기술 혁신을 위해 실제 교통환경에서 현장 실험과 시범 적용을 추진
 - 연구개발을 마치고 생산·시공 가능성까지 검증한 기술만을 대상으로 교통부 산하 전문가 네트워크가 기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
 - 2026년 공모는 친환경 전환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2022년부터 이어온 주제를 보완해 우선 분야를 더욱 명확히 제시
 - 지방정부와 기업, 설계사무소의 의견을 IDRRIM*과 지방 도로 관리기관·기술협의체를 통해 수렴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공모 방향을 반영해 기획
- * 프랑스의 도로·가로·교통 인프라 분야 기술기준과 정책 협력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기관
- 2026년에는 에너지·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할 혁신 기술을 발주처 수요를 반영해 우선 공모 대상으로 선정

□ 2026년 공모는 친환경 설계, 구조물·지반 회복력, 인프라 운영 최적화·지능형 교통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선정 결과는 7월 발표

- 친환경 설계는 도로 자산의 저탄소 시공·유지관리에, 구조물·지반은 노후 교량·터널의 보존·현대화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
 - 친환경 설계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저비용·저탄소를 구현하고 자산 상태를 진단하는 디지털 트윈과 AI를 활용한 저탄소 설계 및 자산 진단 기술을 중점 공모
 - 구조물·지반은 20만여 개 교량과 1천여 개 도로 터널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저비용으로 보수·개량할 기술을 중점 발굴
- 이용 최적화 주제는 도시·도시간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과 지능형 교통을 다루며 공모는 마감 후 심사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공표
 - 인프라 운영 최적화는 도시·도시간 교통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도로 공간의 운영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에 중점
 - 6월 12일 접수 마감 후 도로혁신위원회(CIRR)가 선정 심사를 마무리하고 도로교통국이 7월 중 공공 조달 공고지(BOAMP)에 결과를 발표

※ 출처 : Cerema(2026.04.20), Appel à projets d'innovation "Routes et Rues" : lancement de l'édition 2026